경제혁신 3개년 계획 | 대한민국 제도혁의 힘, 창조경제

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 박영삼 과장(044-203-4220) 최맹순 사무관(4221)

산업부,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화주업계 대책회의 개최

- 화물연대의 조속한 운송 복귀 촉구 및 주요품목 비상수송대책 논의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)는** 10.10(월) 15: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만기 제1차관 주재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돌입에 따른 대책 회의를 가졌다.

* 참석현황 :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무역협회, 한국석유화학협회, 한국철강협회, 한국시멘트협회, 대한석탄협회, 한국철도물류협회,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

□ 이번 회의에서는 석유화학, 철강, 시멘트, 석탄 등 취약업종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, 각 업종별 비상운송대책을 논의했다.

○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석유화학, 자동차부품, 일반기계 등에서 화물연대 소속 차량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파업의 영향을 일부 받을 것으로 보인다.

* **화물연대 비중** : 국내 화물차량 3.2%(43만대 중 1.4만대), **컨테이너 차량 32% (22천대 중 7천대)**
* 컨테이너 수송분담률 : 도로 92.4%, 철도 5.7%, 연안해운 1.8% ('15.4/4분기)

○ 업계 참석자들은 철도파업에 편승한 금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다면서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조속한 운송 복귀를 촉구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를 요구했다.

□ 회의를 주재한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"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차질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 수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"라면서

○ "자동차 파업*, 철도파업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도 최근 유가 반등 추세에 따른 석유화학의 수출 호조세*에 발목을 잡는 행위이므로 이번 사태가 조속히 종결되어야 한다"고 말했다.

* 자동차 파업으로 7~9월간 약 22억 달러의 수출차질 발생
* 10.1-7일 두바이유가($/B) : ('15년)46.53 → ('16년)48.67(+4.6%)

□ 현재, 산업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비상근무에 돌입하고, 상시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면서 업계 피해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, 무역협회, 대한상공회의소, 시멘트협회 등 유관기관도 상황 종료시까지 비상 대응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기로 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 최맹순 사무관(044-203-422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